

# 조선시대 제주읍성 관덕정 광장의 성격

## The Characteristics of Gwandeokjeong Plaza, Jeju-eupseong, in the Joseon Dynasty

김 태 곤\*

Kim, Tae-Gon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홍 승 재

Hong, Seung-Jai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patial structure of Jeju-eupseong (Town-castle) in the Joseon Dynasty. The spatial structure of Jeju-eupseong has distinctive featur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ar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ypical eupseong in inland region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with strengthened military functions. Jeju-eupseong displays a distinctive layout of major buildings and road system with a plaza located in its center in comparison with the ones found in inland regions.

Gwandeokjeong Plaza in Jeju-eupseong served as the center of Jeju's politics, administration, and culture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it, in the modernization period, has become an open public space in the heart of Old Downtown used for community gathering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distinctive spatial structure of Jeju-eupseong in comparison with eupseong in other parts of Korea. Moreover, th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Gwandeokjeong as a plaza that has not been dealt with in other studies of eupseong.

주제어 : 광장, 관덕정, 제주, 마정, 도로체계, 지적원도, 조선시대, 읍성

Keywords : Plaza, Gwandeokjeong, Jeju Island, Road System, Old map, Joseon Dynasty, Eupseong.

### 1. 서 론

조선시대 읍성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방통치의 핵심요소이다. 읍성은 왕권 강화와 효율적인 지방통치를 위해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일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 읍성에는 지형과 수계 등 지정학적 입지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배경, 행정위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적 특징이 반영되었다.

조선시대 제주에는 제주읍성을 비롯하여 대정(大靜)과 정의(旌義) 3읍성이 설치되었다. 제주읍성은 제주도 권역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읍성이다. 읍성의 진산

(鎭山)인 한라산은 남쪽에 위치하며, 객사는 지대가 낮은 북쪽에 자리하여 남향하고 있다. 성문은 동, 서, 남쪽에 3개가 설치되어 있고 남북으로 흐르는 하천이 성을 관통하고 있다. 읍성의 중심부에는 관덕정과 넓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여러 관청들이 세워져 있었다.

이처럼 제주읍성은 내륙지역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읍성과는 다른 독특한 배치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제주읍성 조영계획에 있어 풍수지리와 유교적 이념 외에도 제주지역만의 특수한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는 사면이 바다에 면하여 내륙지역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지역이다. 고대국가부터 1105년 탐라

\* Corresponding Author : forstupa@hanmail.net

국이 고려에 복속되기까지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고려시대 원나라에 의해 ‘탐라도목장(耽羅島牧場)<sup>1)</sup>’이 설치되면서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읍성은 1411년(태종 11)에 목사 김정준에 의해 수축되었다. 그리고 1416년(태종 16)에는 제주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 오식(吳湜)과 판관(判官) 장합(張合)의 주장에 따라 공마 육성을 위한 주요 군사시설로서 목마장(牧馬場)이 설치되고 마정(馬政)<sup>2)</sup>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sup>3)</sup> 제주도 전체는 마정장화(馬政場化) 되었고 마정은 행정에서 주요한 임무가 되었으며, 행정구획도 목장 분포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제주의 마정 조직은 법제화되어 『경국대전』에 명시되었으며<sup>4)</sup>, 제주의 국영목장에서 진상되는 말은 한 해 동안 9차례에 걸쳐 매년 500~600필에 이르렀다.<sup>5)</sup>

이러한 정치·군사적 배경으로 제주읍성 중심에 관덕정과 전면 광장이 자리하게 되었고 독특한 배치구조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 훈련을 목적으로 창건된 관덕정은 조선시대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근대기 이후에는 도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와 다양한 고지도, 문헌 분석 등을 통하여 군사적 기능이 강화된 제

주읍성이 가지는 공간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sup>6)</sup> 특히, 지금까지 읍성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광장으로서 관덕정 광장의 성격을 파악하여 내륙지방의 보편적인 읍성과의 차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제주읍성의 설치와 마정(馬政)

### 2-1. 제주읍성과 마정(馬政) 관계

제주지역에서는 1025년(고려 현종16) 목감양마법(牧監養馬法)과 1071년(문종25) 도거(島陔) 관리의 제정, 1073년(문종27)부터 탐라국에서 예물로 말이 진상되어 문무관에게 하사하였다.<sup>7)</sup>는 기록 등을 통하여 조선시대 이전부터 말이 사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에 본격적으로 말이 사육되고 목장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105년(숙종 10년) 탐라국이 고려에 복속되고, 1273년(원종 14년) 여·몽 연합군에 의해 제주에서 최후의 삼별초군이 평정된 후 1276년(충렬왕 2년) 원나라에 의해 탐라도목장(耽羅島牧場)이 설치되면서 부터이다. 이때 원나라로부터 말 160필과 목호(牧胡, 다루가치)들이 제주로 들어오게 되고 제주를 동·서로 나누어 목마장의 관리기구인 아막(阿幕)을 설치하게 된다.<sup>8)</sup> 이후 제주는 주요한 군마(軍馬)의 육성지로서 1370년(공민왕 19년)까지 약 100여 년간 원나라의 마정조직(馬政組織)에 의하여 운영되고, 조선시대까지 국가 최대의 군마 생산지로서 관리된다.

표 1. 읍치별 소관 목마장 및 관할소  
(강민수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축사’ 「탐라순력도연구총론」)

읍치	목마장	관할소(9진)	마필수(두)
제주목	1소장	별방소 조천소 화북소 애월소 명월소	878
	2소장		792
	3소장		429
	4소장		573
	5소장		1,094
	6소장		1,134
대정현	7소장	모슬소	440
	8소장	차귀소	362
정의현	9소장	수산소	510
	10소장	서귀소	1,573

1) 『고려사』, 27권, 세가(世家) ‘元置達魯花赤于耽羅’: 원이 탐라에 다루가치를 설치하였다.

2) 마정(馬政)의 사전적 의미는 교통, 군사, 외교, 산업상의 필수로써, 말을 생산하고 관리·조달하는 일을 맡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3) 『태종실록』 31권. 동서도(東西道)에 각각 현감(縣監)을 두어야 하니, 재주가 문무(文武)를 겸하고 공경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자를 차하(差下)하여 목장(牧場)을 겸임하게 하소서. 이로 하여금 동서(東西) 정해진(靜海鎭)의 군마를 고찰하여 고수(固守)하게 하고, 또한 관할하는 목장(牧場) 안의 마필의 새끼 쳐서 자라는 것과 수다한 직원(職員)·목자(牧子)가 <중략> 만약 진상(進上)하는 마필을 쇠출(刷出)하는 일과 연례(年例)의 마적(馬籍) 따위의 일이라면 현감(縣監)이 관할하는 마필의 나이와 털 빛깔을 정보(呈報)하면, 안무사가 순행(巡行)하여 친히 감독 고찰하여 시행하고, <중략> “제주(濟州)의 동서도(東西道) 현감(縣監)이 신설한 목장(牧場)을 겸임하는 일이나, 신현(新縣)에다 각현을 합속시키는 일이나, 마필(馬匹)의 번식을 순행하면서 고찰하는 일이나, <중략>”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4) 『경국대전』, 4권, 병조(兵曹), 구목(廐牧)조에는 정삼품의 목사 밑에 감목관(監牧官)을, 본 읍은 종5품의 제주관관, 정의와 대정현은 종6품의 현감을 겸임시켜, 매년 85필 이상 번식케 하면서, 그 군두(群頭)는 품계를 승급하되 뛰어난 자는 품계를 승급하여 관직을 수여토록 하고, 군부(群副)와 목자(牧者)의 직책도 정하였다.

5) 진상마의 종류(9종) : 어승마(御乘馬), 연례마(年例馬), 차비마(差備馬), 탄일마(誕日馬), 동지마(冬至馬), 정조마(正朝馬), 세공마(歲貢馬), 흉구마(凶咎馬), 노태마(老馱馬). 강민수, 「탐라순력도 연구 총론 -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축사」, 2000

6)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제주지역 지적원도를 스캔하고 오차를 보정하여 보정하여 AutoCAD로 디지털화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7) 고려 충렬왕 때는 원나라가 일본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에 대규모 목마장을 설치하고 산마개량(産馬改良)에 힘쓰게 된다. 이때 섬에 설치한 목마장의 명칭을 ‘도거(島陔)’라고 하였다. 『高麗史』, 9권, 세가9, 문종 27년 11월 12일

8) 아막(阿幕) : 원나라가 제주의 목장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관리기구로서 고려 시대 관리 및 군사를 통칭하여 이르던 말이다.

조선시대 마정조직에서 정3품인 제주목사는 상부조직인 의정부·병조·사복시 및 진라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제주 삼읍의 마정을 총괄하였다. 삼읍별로 감목관을 두어 제주판관(중5품)·정의현감(중6품)·대정현감(중6품)이 감목관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행정조직이 마정조직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목관 밑에는 하위구조로 각 목장의 1군마다 마감 1명(또는 2명)과 군두 1명·군부 2명·목자 4명을 배치하여 목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였으며, 1군은 암말 100필과 수말 15필로 정하여 운영하였다.<sup>9)</sup>

제주가 공마(貢馬) 육성에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제주 읍성의 설치에 관한 태종실록의 기록 외에도 조선시대 제주지역을 그린 주요 지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 제작된 지도의 대부분은 군사적 목적이다. 제주지역이 표시된 지도의 대부분에는 3읍성, 9개의 진성, 봉화 등 주요 군사시설과 함께 10개의 목마장이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1750년(영조 26년)경 제작된 전국 군현지도인 해동지도(海東地圖)의 「제주삼현도」에는 제주 3읍과 함께 제주 전역을 10개의 목마장으로 구분하여 그린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해동지도 제주삼현도 (175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2-2. 제주읍성의 설치와 확장

제주의 한라산 북쪽 해안가는 고대부터 제주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아오던 지역이다<sup>10)</sup>. 그중에서도 제주읍성이 입지한 지역은 탐라국 시대부터 이어져온 제주의 중심지역<sup>11)</sup>이다.

9)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의 마정과 갖성, 2009  
 10) 제주읍성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용담동유적, 외도동유적, 삼양동유적 등의 선사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11) 『고려사』 57권, 志 제11권, 지리2, 탐라현조 : 진산(鎭山)은 한라(漢拏)인데, 고을의 남쪽에 있다 【두무악(頭無岳)이라고도 하고,

제주읍성은 1408년(태종 8년) “제주에 큰비가 내려 제주성(濟州城)이 침수되었다”<sup>12)</sup>는 기록으로 보아 이미 조선 초기 이전에 이미 성곽이 축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411년(태종 11)에는 부분적인 수축(修築)이 이루어지고<sup>13)</sup>, 1416년(태종 16년) 목마장(牧馬場)과 마정(馬政)의 운영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1448년(세종 30년) 관덕정이 설치되면서 광장을 갖는 제주읍성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표 2. 제주성의 주요 연혁

시 기	내 용
1411년(태종 11)	목사 김정준이 제주성 수축
1416년(태종 16)	3읍(제주, 대정, 정의) 행정체제 정비
1448년(세종 30)	안무사 신축청이 관덕정 창건
1512년(중종 7)	목사 김석철이 해자, 판교 설치
1565년(명종 20)	목사 곽홀이 성곽 동측 확장 하여 산지천 성안에 들임
1780년(정조 4)	목사 김영수 간성축조, 2문축조(남문-소민문, 북문-수복문)



그림 2. 1780년 이후 제주읍성의 도로 구성

제주읍성은 동쪽의 산지천과 서쪽의 병문천이 남북 방향으로 흘러나간다. 북쪽은 완만한 경사의 해안가가 가까우며, 남쪽은 급격하게 경사지형으로 변하는 지역까지를 그 성곽의 범위로 하고 있었다.<sup>14)</sup> 이후 1555년 을묘왜변이 일어나자 산지천 동측이 지대가 높아 성곽의 방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1565년 성곽 동쪽의 해

또한 원산(圓山)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상에 큰 못[大池]이 있다  
 『태종실록』 권31. “제주에 군(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한라산(漢拏山)의 4면(四面)이 모두 17현(縣)이었습니다. 북면(北面)의 대촌현(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본읍으로 삼았습니다.

12)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8월19일(甲午), 「濟州大雨 水入濟州城 漂溺官舍民居禾穀殆半」  
 13) 『태종실록』 21권, 태종 11년, 1월 3일(甲子), 「命修築濟州城」  
 14) 「제주시 구도심 역사문화경관 기록화사업」.2015. 제주특별자치도(사)도시건축문화유산연구소. p14

자 역할을 하던 산지천을 성곽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성곽은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1780년(정조 4년)에는 성을 관통하는 산지천의 잦은 범람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산지천 서측 옛 성터를 따라 간성을 쌓고, 간성의 남북으로 2개의 문을 축조하였다. 1914년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에 남아있는 제주읍성의 배치형태가 이 시기에 확장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읍성의 중심도로는 남북도로가 아닌 동서도로이다. 성문을 연결하는 중심도로가 내륙지방 읍성의 일반적인 도로처럼 중앙에 배치되지 않고 성곽 북측에 치우쳐 동쪽에 있는 산지천 하류와 연결되어 있다. 산지천 하류는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건입포를 통하여 바다에서부터 성곽 내부까지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지역이다.<sup>15)</sup>

이러한 사실은 (그림 3)의 제주도(濟州圖) 『濟州梁氏大譜』<sup>16)</sup> 하단의 성곽 북수문(北水門) 내부에 ‘주출입(舟出入)’이라고 표시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주출입(舟出入)’이라고 표시된 산지천 상류에 ‘교(橋)’라고 표현된 곳이 관덕정 광장에서 이어진 동서도로가 하천과 만나는 지점이다. (그림 4) 『濟州牧都城地圖』<sup>17)</sup>에서도 북수구(北水口)라고 표시되어 있고, 내부에 석교(石橋)라고 표현되고 있다. 단지 북수문(北水門)과 북수구(北水口)의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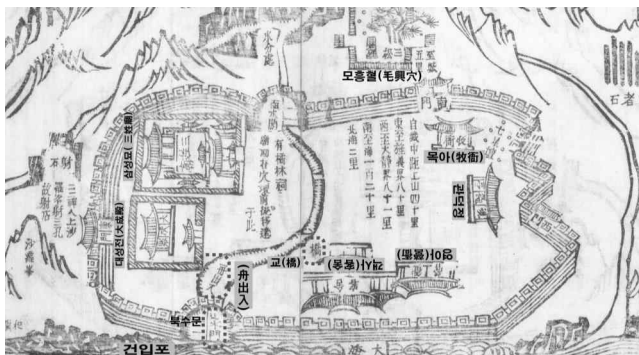


그림 3. 濟州圖<濟州梁氏大譜>(18세기초,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외부로의 출입이 용이한 북수구에는 방어에 취약한

15) 1928년 건입포 항만 개발 당시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7세기경까지 중국 주변 동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어졌던 중국 한나라 오수전 등 18종의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최소 기원후 7세기경부터 조선시대까지 물류와 교역의 중심 포구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6) ‘제주양씨 족보에 수록된 제주도(濟州圖)는 민간에서 제작되어 활용되었던 대표적인 지도. 제작시기는 1702년 건립된 삼성묘가 동문 안쪽에 있고, 1755년 광양으로 이전되는 향교가 성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전반기로 추정된다.’ 오상학, 『제주고지도』. 국립제주박물관, 2020, P242.

17) 앞의 책(P240)에서 오상학은 이 지도를 ‘1694(숙종20) 이익태 목사가 병풍으로 제작한 제주의 10경 그림인 『탐라십경도』의 후대 사본으로 추정 된다’라고 하고 있다.

구조임에도 별도의 방어시설이 없다. 우리나라 최대 강우 지역으로, 한라산의 폭우로 인한 산지천의 범람은 성곽 남수구와 북수구의 구조물을 쉽게 붕괴시켰고, 방어시설의 설치를 어렵게 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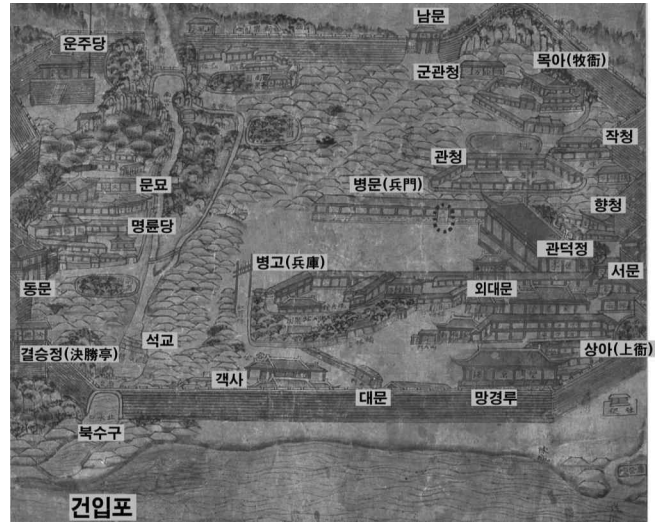


그림 4. 「濟州牧都城之圖」(18세기초)



그림 5. 1900년경 산지천 하류 건입포 전경(썰물)



그림 6. 1900년경 산지천 하류 건입포 전경(밀물)

이러한 산지천의 범람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1780년 목사 곽홀이 간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남북으로 2개의 문과 문루도 설치하게 된다. 문루는 산지천을 향하여 동향으로 설치되었고, 간성 남·북문을 통하여 나온 2개의 도로는 산지천 건너편 동측에서 하나로 합쳐져 동문으로 이어진다. 이 도로가 제주와 내륙을 연결하는 주요 포구로 사용되어진 화북포·조천포까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가 된다

성곽 내부를 관통하는 하천을 따라 남북으로 설치된 간성에는 미석과 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장은 총안, 타구 등의 방어시설을 모두 갖춘 모습이다. 문루는 정면3칸 팔작지붕으로 규모와 격식 면에서 제주읍성의 남문과 유사하다. 이러한 것으로 비추어보면 단순히 하천의 범람을 막는 용도 외에 외부의 침입에 대비할 뿐 아니라 관덕정 광장까지 진입하는 주요도로의 출입문으로서의 위계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7, 그림 8, 그림9 참조)



그림 7. 산지천 남북으로 축조된 간성과 북문 문루(1900년대)



그림 8. 제주읍성 남문          그림 9. 간성 북문 문루와 여장

### 3. 제주읍성과 관덕정 광장

#### 3-1. 제주읍성의 공간구조와 관덕정

조선시대 읍성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조건은 성곽의 축조, 음용수의 확보, 비상시 인근 사람들이 성내에 머무를 수 있는 적절한 면적의 땅, 주변의 풍부한 경작지 등이다. 입지를 정할 때는 진산을 배후에 두고 가장 먼저 객사와 관아 시설이 들어설 위치와 좌향을 결정한다. 이것은 중국의 도성 제도로부터 비롯하여 수도 한양의 도성 배치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유교적 예제(禮制) 사항이 반영된 배치 방법이다.

제주읍성은 읍성제도의 기본적인 배치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독특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탐라국 시대부터 한라산을 제주 북부 중심지역의 진산으로 삼았으며, 이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sup>18)</sup> 북측에 해안, 남쪽의 섬 중앙에 진산이 위치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풍수적 상황임에도 관아의 배치와 좌향은 예제적 질서를 따르고 있다. 제일 북측 상단에 객사가 위치하고 아래로 목사의 집무시설인 연회각 등의 관아건물을 차례로 배치하였다.<(그림 20)참조> 진산인 한라산을 바라보는 남향으로 주요 관아건물을 배치하고 관아의 외대문과 회랑으로서 동서방향의 광장을 구성하고 있다.<sup>19)</sup>

제주읍성에서의 관덕정 광장은 남향의 상아 및 객사

와 직교하는 모습이다. 서측에 관덕정을 동향으로 배치하고 관덕정 좌우측에 회랑이 설치되어 광장을 공간적으로 한정하고 관덕정의 기능을 부각시키는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림 4)의 제주목도성지도는 관덕정과 좌우 회랑, 광장을 중심에 부각하여 표시하고 성곽과 동·서·남문, 상아와 이아, 향청과 작청 등의 주요 건물을 그려놓았다. (그림 3)은 제주양씨의 족보에 기록된 제주도 지도로 제주의 고·양·부 세 성씨와 관련된 모흥혈, 삼성묘, 대성전과 함께 관덕정 좌우에 상아(上衙)와 이아(貳衙, 牧衙), 객사가 그려져 있다.<sup>20)</sup> 이 지도에서도 주요 시설로서 동향의 관덕정 좌우로 관덕정 광장을 면하여 상아와 이아가 그려져 있다. 두 개의 지도에서 관덕정과 광장 공간이 부각되어 그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광장 북측 회랑은 제주읍성 상아의 외대문과 연결되어 있다. (그림 10)의 탐라순력도 <승보시사>에는 회랑 내부에 군기청, 진무청, 군기고 등의 군사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회랑과 연결되어 북측으로 중층 병고(兵庫)가 설치되어 구성되고 있다.<sup>21)</sup> (그림 4) 제주목도성 지도에도 관덕정 광장에서 북측 객사방향으로 중층 병고(兵庫)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객사로 향하는 도로 진입부에 배치된 중층 병고 건물과 홍살문으로 인하여 동선의 방향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다.

(그림 12) 탐라순력도 <제주조점>에는 북측 외대문과 연결되어 설치된 동측 회랑만 1×9칸이다. 외대문 동측 9칸 중 2개의 칸이 출입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남측 회랑에서도 1개의 칸이 입구 모습으로

20) 제주도의 군현은 제주목·대정현·정의현이며, 수령으로 목에는 목사(정3품), 현에는 현감(종6품)이 파견되었다. 행정체계상 제주목사·대정현감·정의현감이 각 읍의 수령으로 소관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리고 상위 관서인 전라도 관찰사의 명령을 받아야 하나, 전라도 관찰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과 제주 목장의 중요성으로 제주목사가 소관 지역인 제주목을 관리하면서 감목관직을 겸하였던 대정현과 정의현감을 지휘하고 3읍의 마정을 총괄하였다. 제주목사는 행정과 군사를 겸직하였다. 조선초기에는 주로 만호, 안무사의 직책을 겸임하고 이후 병마수군절제사, 방어사 등의 군직을 겸임하였고 정3품 중에서도 당상관을 주로 임명하였다. 제주목사가 대정·정의현 지역으로의 순찰 등으로 부제시에는 제주목사의 부관 격인 판관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제주 목사의 동헌을 감영과 마찬가지로 영청(營廳)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판관의 집무처와 구분하여 상아(上衙)라고 칭하였다. 또한 판관의 집무처는 목아(牧衙) 또는 이아(貳衙)라고 칭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목사의 집무처를 상아, 판관의 집무처를 이아로 칭하도록 하겠다.

21) 「탐라순력도」는 제주목사와 병마수군절제사 관직을 제수받은 이형상(李衡祥)이 1702년 순력을 마친 후, 순력을 기리기 위해 이듬해 5월13일에 완성한 그림책. 여기에는 제주도 지도인 「한라장축」을 비롯하여 전체 41면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그림책에서는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오상학, 「탐라순력도」의 지도학적 특징과 의의, 2021

18)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조 : 한라산(漢拏山), 주 남쪽 20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19)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제주읍성과 대정읍성도 한라산을 진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화산활동으로 섬의 중앙에 형성된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 해안에 제주읍성, 서남쪽에 대정읍성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측 회랑과 면하여 군사 관련 건물이 집중되어 있고, 관덕정 광장에서의 마정(馬政)과 군사훈련 등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외대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없는 말의 출입 등을 고려한 구성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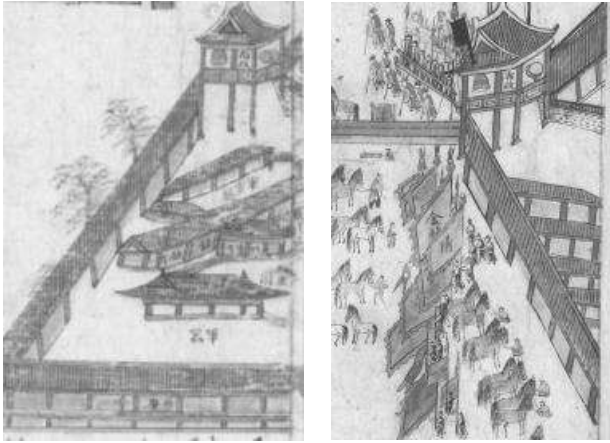


그림10. 탐라순력도 <승보시사>    그림11. 탐라순력도 <공미봉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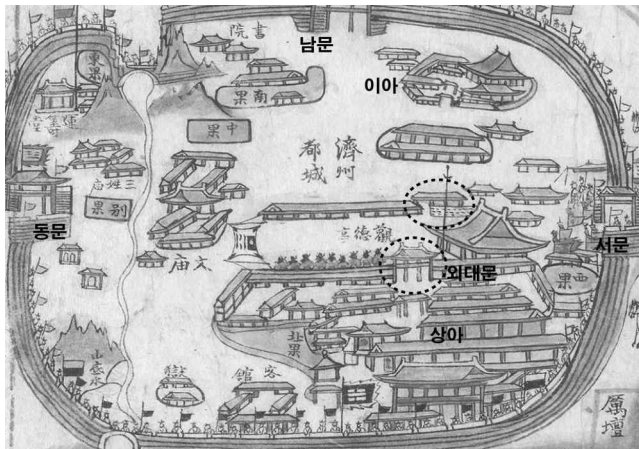


그림 12. 외대문과 회랑(탐라순력도의 <제주조점>)

(그림 12) 「탐라순력도」 <제주조점>에서 관덕정 광장 남측 회랑 역시 좌측에서 6번째 칸이 광장을 면하여 출입이 가능한 모습이다. 관덕정을 중심에 두고 좌우에 설치되어 있는 회랑의 규모가 유사하다. 남측 회랑 뒤 관청과 작청 너머로 관관의 집무청인 이아(貳衙, 牧衙)가 동향하고 배치되어 있다. 집무청은 동향을 하고 있으나 외대문과 내대문이 광장을 향하여 북쪽으로 설치되어 주요 동선을 광장 방향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아 영역의 시설물은 단일 영역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다. 관덕정 광장의 남측 회랑과 이아 영역 사이의 동서방향으로는 도로가 구성되어 있다. 관덕정 광장에서의 활쏘기나 과거 시험 등의 행사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보행이 불가할 경우, 제주읍성 동서 방향의 주요 동선은 관덕정 광장 남측으로 우

회하여 이아 앞을 지나 서문으로 연결되게 된다. 관덕정 남측을 인접하여 서문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일제강점기 개설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일상적인 도로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24년에는 일제가 관덕정 인접 도로에 관덕정 처마가 도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처마를 줄이기도 하였다. 제주목사가 직접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물 처마 아래로 일반인들이 다니는 도로가 설치될 수 없을 것이다.(그림 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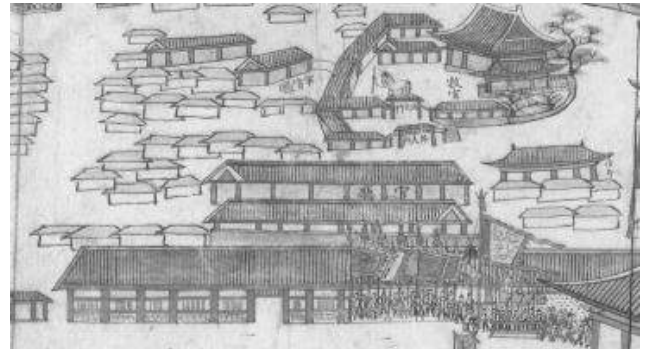


그림 13. 이아 영역(탐라순력도의 <제주사회>)



그림 14. 관덕정 남측 일제강점기 도로 개설 전후의 모습

관덕정 앞 공간을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심점이 되는 건물이 관덕정이다. 관덕정은 동향을 하고 있는 좌향 뿐 아니라 건축구조도 일반적인 누정(樓亭) 건축물과는 다르다. 2고주 7량가의 건물로 내부 전면 퇴칸 바닥을 기단과 동일한 형태의 박석을 깔았고, 나머지 내부 바닥은 한 단을 높여 마루를 깔았다. 또한, 측면 어칸을 강조하는 모습과 월대 정면 어칸과 동일한 폭으로 판석을 깔아 좌우 협칸과 비교하여 위계를 높게 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 전면 월대는 21.6m×6m의 규모로 관덕정 건물 내부 전면 퇴칸에서 외부 광장까지 공간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길게 내밀어진 처마역시 관덕정 월대의 기능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sup>22)</sup> 실측도면상 전면

퇴칸과 월대 중앙의 판석은 (그림 18)의 「탐라순력도」 <제주전취>에서 월대 위에 사람들이 4열로 앉아 있는 모습과 전면 퇴칸에 앉아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 또한 관덕정 전면 퇴칸은 사대(射臺)로 사용되었으며 (그림 24), 월대에서의 공마 점검(그림 22) 뿐 아니라 천막을 설치하여 과거시험을 치르는 모습도 볼 수 있다(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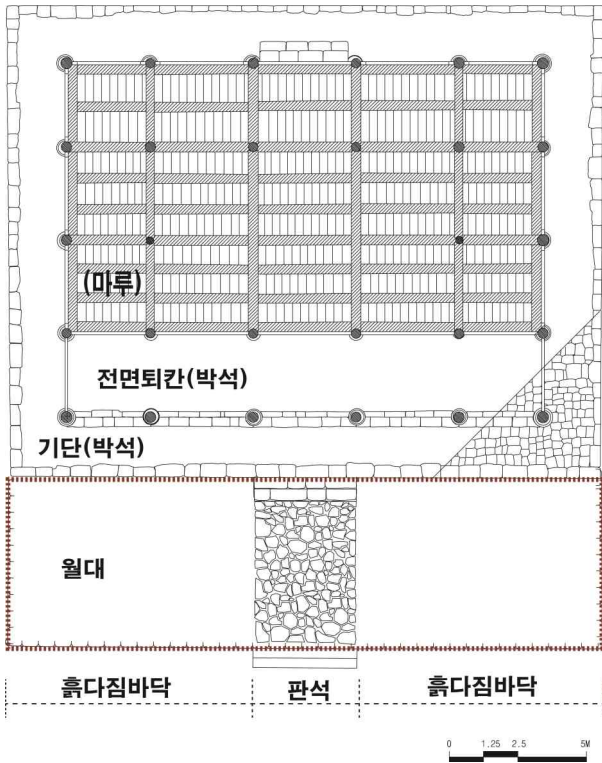


그림 15. 관덕정 평면도(월대, 기단, 전면퇴칸 - 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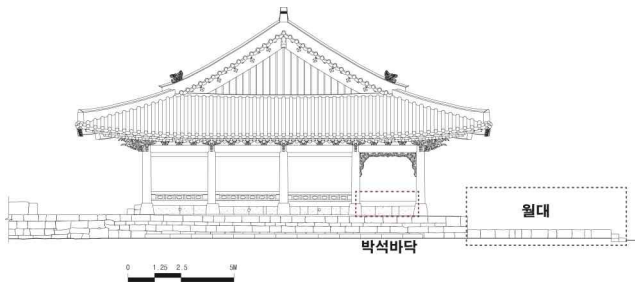


그림 16. 관덕정 우측면도

읍성의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인 객사에서 남문으로 이어지는 남북도로와 동문에서 관아로 이어지는 동서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광장의 동북쪽 모퉁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직교하지 않고 비껴서 구성함으로써 광장으로서의 공간을 한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공간이 동문

22) 후지시마가이지로(藤島亥治郎)는 기고문에 '대수선 아니 약수선을 하여 15자(尺) 이상이나 나온 서까래를 2자나 잘라 줄였고 고유의 맛을 지니고 있던 지붕을 무미건조한 일본식 지붕으로 바꾸고'라고 서술하고 있음. 「조선과 건축」 1925년8월호(제4집 제8호) p.31

과 서문, 관아, 객사를 연결하고 제주 읍성에서 중심이 되는 광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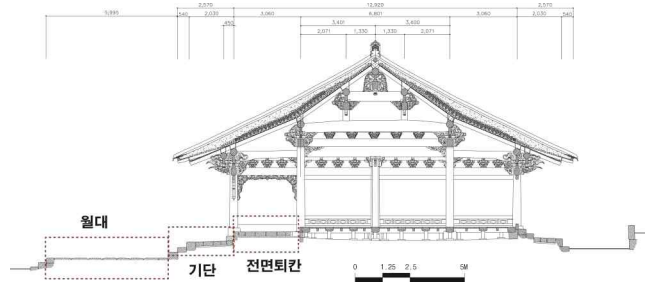


그림 17. 관덕정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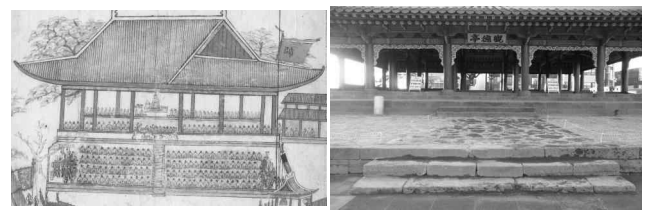


그림 18. 월대 중앙 바닥 (탐라순력도의 <제주전취>)      그림 19. 관덕정 월대 중앙 바닥 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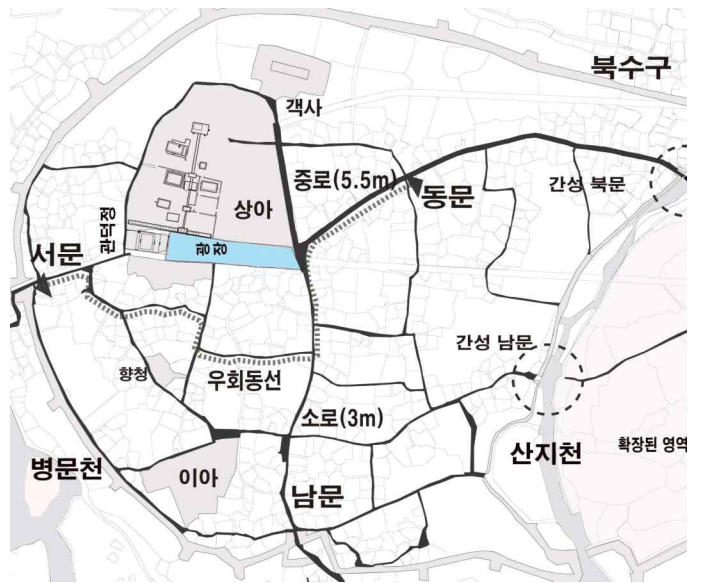


그림 20. 종로5.5M(광장↔객사, 광장↔동문), 소로3M(광장↔남문, 종로 이외 전구간), 행사시 우회동선

대부분의 읍성에서는 남문에서 객사로 이어지는 도로를 가장 높은 위계를 갖도록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주읍성에서는 동문에서 시작한 주요 동선과 남문에서 올라온 도로가 광장에서 만난다. 지적원도상 제주읍성 동문에서 광장으로 이어지는 동서도로와 광장에서 객사로 연결되는 두 도로의 폭이 5.5m로 제주 읍성 도로 중에서 가장 넓다. 좌우 길옆 도랑을 감안

하면 명확하게 중로에 해당 된다. 남문에서 중앙 광장까지의 이어지는 남북도로가 평균 3m의 소로로 구성되어 있는것과 비교하면 남북도로 보다 폭이 넓은 중로로 연결하여 객사의 위계와 예제적 사상을 실현시키는 모습이다.<sup>23)</sup>

3-2. 관덕정 광장의 기능

관덕정과 관덕정 광장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공마(貢馬) 진상을 위한 점마(點馬) 공간이다. (그림 22) 「탐라순력도」 <공마봉진>에는 관덕정 광장에서 제주 목사가 3읍의 감목관이 선정하여 온 100여필의 진상마를 최종 점마(點馬)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목사가 관덕정 내부 중앙에 앉아서 관덕정 월대 위에 있는 말을 한 마리씩 점검하고 있다, 월대 아래 광장에서는 관덕정 전면 좌우의 회랑을 따라 말들이 점검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시대 전국 7도 138개소의 목장과 말의 관리는 병조의 사복시(司僕寺)에서 총괄하였다. 1663년(현종4년) 사복시의 제조(提調)였던 허목에 의하여 편찬된 사복시의 「목장지도(牧場地圖)」(그림 23)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貢馬封進)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sup>24)</sup> 점마는 진상 목적에 따라 말의 외형 뿐 아니라 잘 길들여진 말의 습성과 행태까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이 걷고 뛰고 달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마장의 울타리 기능과 같은 물리적 시설물이 필수적이다. 「목장지도(牧場地圖)」에서 중심 건물을 중앙에 두고 전면 좌우에 회랑형태의 건축물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마필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관덕정 앞 광장의 규모는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상으로 측정해 보면 폭이 33m, 길이 143m로 면적이 4,719평방미터(1,430평)에 이르러 마정을 펼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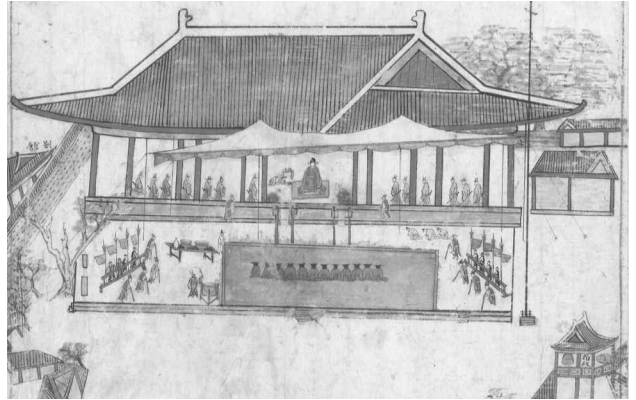


그림 21. 관덕정 월대의 과거시험(탐라순력도의<승보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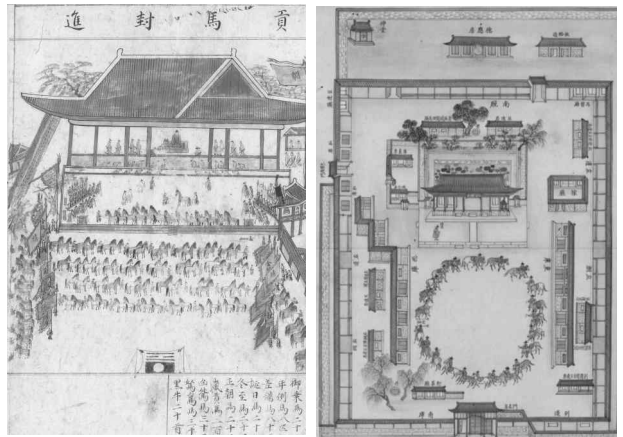


그림 22. 「탐라순력도」 공마 봉진(貢馬封進)      그림 23. 사복시(司僕寺) 목장지도(牧場地圖)

관덕정 광장에서의 공마진상을 위한 점마(點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군사훈련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제주목에는 관덕정에서의 무예 훈련 내용과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 무예훈련은 활쏘기, 말타고 활쏘기, 왜적의 변란을 대비한 진을 치는 전술 훈련, 군사의 사열 등이다. 「탐라순력도」에는 숙종28년 11월 18일, 이형상 목사, 제주관관 이태현, 대정현감 최동제, 정의현감 박상하, 군관 등의 참여하에 관덕정 전면 퇴칸을 사대(射臺)로 하여 광장 끝에 설치된 과녁을 향하여 활쏘기 훈련을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서거정(徐居正)의 「사가집(四佳集)」에는 관덕정의 성격에 대해서

“이 정자를 지은 것은 놀며 관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 열무(關武)를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부터 제주 고을 사람들이 날마다 여기에서 활쏘기를 익힐 것인데, 그냥 과녁을 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타고 달리며 쏘는 것도 익힐 것이고, 말을 타고 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투의 진법(陣法)도 익힐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sup>25)</sup> 말을 타고 전술훈련을 할 수

23) 『경국대전』에서는 한성부의 도로폭을 규정하고 있다. 노푼은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하며, 위계에 따라 대로는 56척(17.48m), 중로 16척(5m), 소로 11척(3.42m), 길옆 도랑은 2척(62cm)이다.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하여 도로의 위계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24) 1678년(숙종 4) 국가의 중대한 마정(馬政)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의 목장 실태를 수록한 지도첩이다. 1권 42면으로 내용은 총 3장으로 되어있다. 1장은 회화식 그림인 진현마정색도, 2장은 7도의 부군현별 목장 현황, 3장은 허목이 기록한 후서가 실려 있다. 이 중 제2장에 기록된 전국의 목장 수는 경기도 6개읍에 30개소, 충청도 4개읍 10개소, 전라도 12개읍 49개소, 경상도 9개읍 23개소, 함경도 5개읍 7개소, 황해도 6개읍 10개소, 평안도 3개읍 4개소, 제주도 3개읍 5개소로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7도 48개 읍에 총 138개소이다.



있을 정도로 광장의 규모가 상당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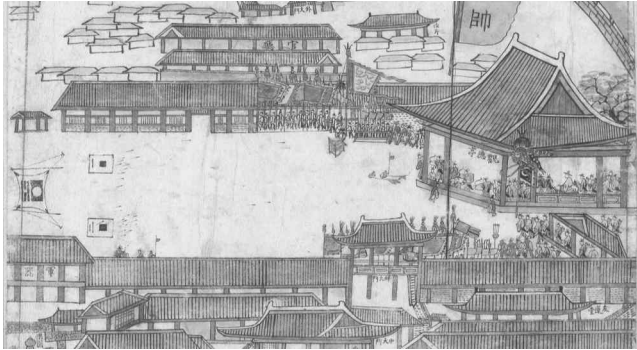


그림 24. 관덕정 광장에서의 활쏘기

관덕정과 관덕정 광장은 공마 진상, 활쏘기, 전술 훈련 등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과거시험, 기로연 행사 등의 다양한 행사도 이루어 졌다. 1601년(선조 34) 제주도 안무사로 왔던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신석조의 관덕정기(觀德亭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을 붙이고 있다.

“관덕정은 성안에서 집의 규모와 꾸밈이 가장 크고 넓어서 본주에서 많은 사람의 모임은 모두 이곳에서 모인다. <중략> 앞쪽으로는 시도(矢道)와 분혁(粉革)이 마주보고 서 있으니 곧 본주의 사장(射場)이다. <중략> 무기고, 동서군영 등 여러 행랑이 좌우 병렬로 맞대어 붉은색으로 비추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관덕정과 광장이 좌우 행랑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이곳은 활쏘기 장소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주요한 행사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것을 알 수 있다.

1701년(숙종 27년) 「숙종실록」에는 제주 목사 남지훈의 요청으로 제주에서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고<sup>25)</sup>, (그림21)의 「탐라순력도」 <승보시사>에서는 시험관인 이형상 목사와 부시관 제주관관 이태현, 참시관 대정현감,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 등이 차일(遮日)을 친 관덕정의 월대에서 과거시험을 치르는 모습도 확인된다.

근대시기 관덕정 광장은 제주지역 최초로 오일장이 개설된 곳이다. 1702년(숙종 28)년 부임한 목사 이형상의 「남환박물」에는 저자거리에서 시장이 형성되기

않았으며, 수령이 시장을 형성하려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1897년 유배인 김윤식의 「속음청사」에서는 관덕정 광장에서 오일장이 열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관덕정 광장에서 오일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06년 윤원구 군수가 부임하면서 관덕정 광장을 비롯한 도내 9개 지역에서 정례적으로 오일장이 개설되게 된 것이다.(그림 26 참조) 또한, 이곳은 광해군의 빈소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며, 민란과 제주사의 가장 큰 사건인 제주 4·3의 도화선이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sup>27)</sup>

관덕정 광장은 일제강점기 동서도로가 개설되면서 광장을 구성하는 공간적 경계가 훼손되고, 도로로서의 기능으로 점차 변화된다. 그러나, 관덕정 광장을 구심점으로 도청, 은행, 우체국 등의 근대적 공공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관덕정 광장은 제주 근현대의 핵심적인 도시의 주요 공간이자 시민광장으로서의 역사성을 지속시키고 있다. 조선시대 군사적 목적의 광장으로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시기까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시민항쟁과 경제, 문화 활동의 중심이 되는 제주 근현대의 도시 시민광장으로서의 기능이 이어지고 있다.



그림 25. 1920년경 관덕정 광장에서의 입춘굿 놀이 전경

25) 「四佳集」 서거정(徐居正) 제2권 기(記) 況是亭之作. 非爲遊觀而設. 本爲閱武也. 則自今州之人. 日日習射于茲. 非徒射侯. 于以習騎射. 非徒騎射. 于以習戰陣.

26) 조선시대 제주에서 시행되었던 과거는 문과로 승보시(陞補試), 외방결과, 동당감시(東堂監試), 생·진과(生進科)의 초시(初試), 도과(島科), 마병복시(馬兵覆試) 등이 있다. 고창석 「탐라순력도연구총론」, 2000. P.76

27) 광해군의 빈소 : “7월 3일 소렴(小斂)하고 4일에 입관하여 7월 27일 관덕정에서 대제(大祭)를 거행한 후 제주 삼읍을 순회하고서 8월 5일에 배를 띄웠는데 되돌아와서 정박하다가 8월 18일 제주를 떠났다” <제주목사 이형상. 「남환박물」 기록>

민란 : 1901년 발생한 난으로 ‘이제수의 난’이라고 불린다. 극심한 조세체단, 1900년 전후 제주로 급격히 전파된 천주교와의 극심한 갈등 등으로 인하여 발발. 제주성을 거점으로 한 천주교 신자인 봉세관(封稅官) 강봉현과 이에 반발한 관노 출신 이제수가 이끄는 민란 세력이 충돌, 관덕정 광장에서 교인 317인 척살되는 장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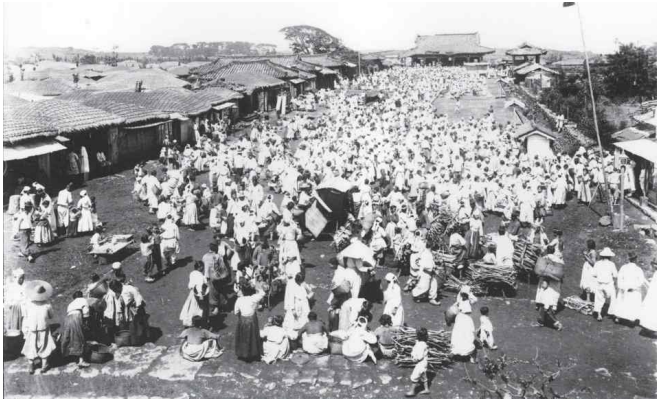


그림 26. 1915년경 관덕정 광장의 시장(출처: 제주성총서, 2015)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읍성의 공간 구조와 관덕정 광장의 성격을 파악하여 내륙지방 읍성과의 차별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주읍성은 동향의 관덕정과 관덕정 광장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을 축으로 구성되었다. 광장을 면하여 좌우측에 관아시설이 구성되며, 좌측으로는 객사와 제주목관아의 주요 관청이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우측으로는 관관의 집무청인 이아가 동향하였으나 내·외대문은 광장 방향으로 북향하여 배치하였다. 이는 북측의 한라산을 진산으로 둘 수밖에 없는 섬이라는 지형적 조건을 극복하고 조선시대 읍성 축조의 전통적 조영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동서방향으로 배치된 관덕정과 관덕정 광장은 이러한 기능적 측면과 전통적인 조영원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공간적 매개체로서의 기능과 함께 근대적 광장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기능적, 실용적 측면과 유교적 이념을 매우 조화롭게 실현시킨 독특한 읍성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체계는 동·서·남문에서 광장으로 연결되며, 동문에서 간성 북문과 광장을 거쳐 객사로 이어지는 동서도로가 가장 넓고 위계가 높다. 이 도로는 광장으로부터 성곽 북수구를 통하여 연결되는 건입포와 제주읍성 동쪽에 있는 화북·조천포까지 동서로 연결되며, 물류와 교통에서도 주요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관덕정과 관덕정 광장은 군사, 정치, 사회의 중심 공간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하였다. 제주·정의·대정 3읍수령의 관직과 체계는 섬 전체의 목마장과 마정을 고려하여 설치되었고, 제주목사가 이곳 관덕정에서 공마(貢馬) 진상을 위한 마정(馬政)을 총괄하였다. 관덕정과 관덕정 광장에서는 관덕정을 사대(射臺)로 하는 활쏘기 훈련과 전술훈련, 군사의 사열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월대에 천막을 설치하여 과거시험을 치르는 장

소로 사용되어 졌으며, 기로연 등 제주지역의 주요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공성과 광장으로서의 기능은 제주 최초로 오일장이 개설되는 등 근대시기까지 이어졌다.

관덕정의 건축구조와 배치는 광장에서의 다양한 기능과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되어 졌다. 관덕정은 일반적인 누정(樓亭) 건축물과 같은 사면이 개방된 구조이나 전면 월대와 월대 중앙의 판석, 내부 전면 퇴칸의 박석 깔기, 전면 퇴칸과 단차를 둔 내부 마루 설치 등의 특징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관덕정 내부에서 기단과 월대를 통하여 광장과 동문으로 이어지는 공간과 동선은 광장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유기적인 작용을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읍성 내 광장에 대한 기초연구로 전형적인 읍성과 비교되는 지역만의 특수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지적원도를 통하여 근대시기 관덕정 광장 주변 회랑의 변화와 도로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관덕정 광장의 의미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정비 방향과 미래적 성격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홍승재, 「전라감영의 시대적 변화와 건물의 구성」, 전주역사박물관, 2008.
2. 홍승재, 「한국의 건축문화재-서울」, 기문당, 2005.
3. 이희권, 홍승재, 송석기, 원도연, 홍성덕, 「전라감영복원백서」, 전주시, 2015.
4. 「제주성 총서」, 제주시, 2015
5. 오상학, 「제주고지도」, 국립제주박물관, 2020
6. 강만익, 「조선시대 제주도 찾성연구」, 2009
7. 강민수, 「탐라순력도에 나타난 축산」, 2000
8. 「탐라순력도연구총론」, 제주시, 2000
9. 「관덕정 실측수리보고서」, 문화재청, 1997
10.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19
11. 「제주시 구도심 역사문화경관 기록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사)도시건축문화유산연구소地間, 2015
12.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13.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koreanhistory.or.kr)
14.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
15. 승정원 일기(sjw.history.go.kr)

접수(2021. 10. 10)

게재확정(2021. 10. 29)